

인간은 하나님이다:

『창세기』 1:26의 Imago Dei에 대한 재해석

배철현*

目次

- I. 들어가는 글
- II. 초기 유대인들의 이해
- III. 초대 교부들의 이해
- IV. 히브리 원문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 V. 고대근동문헌에서 '인간창조'
- VI.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은 『창세기』에 기술된 인간창조에 관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 창조의 극치라고 주장해 왔다. 『창세기』 1:26에 언급된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흔히 라틴어 표현 *Imago Dei*라고 알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됨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형상'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에 대한 교리, 특히 『신약성서』와 유대교의 해석과 초대 교부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지나치게 토학화, 혹은 철학화하여, 그 원래의 의미를 희석내지는 상실시켰다.

유대-기독교 전통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 창조를 기술하는 『창세기』 1 전반 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¹⁾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했다는 소위 P기자(Priestly Writer 제사장계열 기자)의 하나님의 인간창조에 대한 고백내용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중 극치를 나타내는 인간 창조를 표현하는 이 중요한 구절이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번역도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다.

The God said, "Let us make humankind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NRSV는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을 『창세기』 1:26 하단에 첨가하였다.

1.26:

The plural us, our (3.22; 11.7; Isa 6.8) probably refers to the divine beings who compose God's heavenly court(1Kings 22.29; Job 1.6).

Image, likeness, refer not to physical appearance but to relationship and activity. Humankind is commissioned to manifest God's rule on earth, on the analogy of a child

1)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대한성서공회, 1993), p. 1.

who represents a parent
(see 5.3).²⁾

(번역)

1.26:

복수형 우리를, 우리(『창세기』 3:22, 11:7; 『이사야』 6:8)라는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열왕기상』 22:29; 『욥기』 1:6)을 구성하는 ‘신적인 존재들’인 것 같다.

형상, 닮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와 하는 일’을 나타낸다.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임받았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대신하는 어린아이의 대비와 같다(『창세기』 5:3을 보라).

『창세기』 1:26은 해석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간접 인용구의 주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가?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양대로’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창세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로 번역되어있는 것일까? 이상하게도 성서에서는 일인칭 단수가 아니라 일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쓰인 듯한 인상을 준다. NRSV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천상회의’의 ‘신적인 존재들’이 공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둘째, 간접인용문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겉모습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겉모습을 베껴 만들었는가? 또한 이 문장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 즉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들은 동의어로 강조를 위한 동의어 반복으로 사용되었는가? NRSV의 설명 또한 불분명하기 그지없다. 단순하고 명확한 의미를 주기보다는 ‘관계와 하는 일’(relationship and activity)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2)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with Apocrypha: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 2.

설명으로 인간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선포임에는 틀림이 없다. 『창세기』에서는 세 군데(『창세기』 1:26-18; 5:1-3; 9:6)에서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런 인간에 대한 존엄성 표현이 문맥에 숨어있기는 하지만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서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으며 초대교부의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과 '홍내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하려는 노력임이 틀림없다.

『구약성서』에서는 몇 가지 하나님 모양을 홍내 낸 형상들이 예배 의식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거룩들'(『출애굽기』 25:18-22; 37:7-9; 『열왕기 상』 6:23-28)은 신의 현존을 법궤의 네 모퉁이에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다(『출애굽기』 20:4,5). 하나님은 비가시적이고 형용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신의 '형상'들은 모두 우상들이다. 이런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P기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가? (『창세기』 1:26-27; 5:1; 9:6).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골로새서』 1:15).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처음으로 가시적이 되었고 『창세기』 1:26을 '예수'를 통해 재해석하였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인간은 새로운 형태의 자아인, 아니 원래의 자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아가 된다. 이 형상으로 첫 인간이었던 지상의 아담과는 달리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인간이 된다(『고린도 전서』 15:49; 『골로새서』 3:10; 『로마서』 8:29; 『고린도 후서』 3:18). 그러면 먼저 이 성서 구절들을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II. 초기 유대인들의 이해

초기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차용한 것 같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신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³⁾ 인간창조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II.1. 필로의 이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이다

제 2 성전시대의 유대학자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20 B.C.-50 A.D.)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 #69a.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 후에, 이전에 말했던 것들처럼, 모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인간보다 하나님과 더 닮은 것은 없다. 누구도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이 닮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닮음은 영혼, 즉 마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담겨있는 정신은 우주에 존재하는 태초의 모형의 본 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그것을 지니고 그 안에 그 형상을 지니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과 같다.⁴⁾

필로는 플라톤과 로고스 사상에 영향을 받아 『창세기』 1:26의 인간 창조와 『창세기』 2:7의 육체를 가진 첫 인간인 아담을 구분하였다. 『창세기』 1:26의 인간 창조는 육체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비육체

3) 『출애굽기』 20:4; 『레위기』 26:1; 『신명기』 4:16; 5:8; 27:15.

4) L. Cohn and P. Wendland, eds. *Philonis Alexandrini Opera quae suoersunt*, vol.1 (Berlin: Reiter, 1896), # 69.

적인 이상을 전하고 있다. 필로의 『창조에 관하여』 #134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창세기』 2:7에서 만들어진 인간과 『창세기』 1:26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초기 인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에 형성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영혼,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이상, 형태, 혹은 도장으로 비육체적이며 남자와 여자 같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본성을 지니고 있다.⁵⁾

다른 유대교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상형이 되는 중간자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잠언』 8:22에 나오는 '지혜'가 의인화되자, 유대인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하였다:

『잠언』 8:22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⁶⁾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 지혜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플라톤의 이상적인 형태들의 집합체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영혼의 개념과 접목시켰다. 그는 하늘의 지혜, 즉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시하였다. 『에스겔』 1:27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았고 이러한 해석은 후에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

II.2. 바울의 이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이다

5) Ibid. # 134.

6) 그리스어 역본인 『아퀼라』와 『심마쿠스』는 '나를 소유하고 계셨다'라고 번역하였고 기원전 2세기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기원후 5세기 시리아어 역본인 『페쉬타』, 그리고 기원후 2세기 아랍어 역본인 『타르굼』에서는 '나를 낳으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였다.

바울은 인간창조에 관한 기사를 남성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창세기」 1:26이하를 인용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7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27에 나오는 ‘사람’을 ‘남자’로 잘못 이해하면서, 여성의 종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바울은 「창세기」 2: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뚝배기(?)’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기초로,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했다는 신학을 개진하고 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고린도전서」 11:3)이라는 남성중심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 그러기에 여성은 기도할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3:10에서 「창세기」 1:27절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후서」 4:3이후에서 예수를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첫 아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상과의 중간자로 해석하였다.

「신약성서」에서 이 구절이 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수를 통해서 갱신되어야하고?)

7) 「골로새서」 3:10.

인간은 변화되어⁸⁾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다음은 바울이 로마에 보편 편지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재해석이다:

『로마서』 8:29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Ⅲ. 초대 교부들의 이해

그리스도교 교리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 1:26에서 언급되는 ‘형상’에 대한 두 가지 표현들, 즉 ‘하나님의 형상(imago)’과 ‘하나님의 모양(similitudo)’을 구분하는데서 출발한다. 이 형상은 인간의 양성, 즉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되어, 인간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 구조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된 후에도, 인간이 아직 간직하고 있는 이 형상은 살인을 금지하는 법의 기초가 된다. 『창세기』 9:6은 살인 금지 조항이다:

『창세기』 9:6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여기서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약시대의 형상의 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예수’를 통해 ‘예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야고보서』 3:9은 구약성서의 형상의 개념을 간직한 유일한 구절이다:

『야고보』 3:9

8) 『고린도후서』 3:18.

우리는 이 책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책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Tertullian은(200 A.D.)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De Baptismo Liber』 VI.42b-45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De Baptismo Liber』 VI.

(42b) ita restituitur homo deo ad similitudinem eius qui retro

(43) ad imaginem dei fuerat: imago in effigie, similitudo in aeternitate

(44) censetur: recipit enim illum dei spiritum quem tunc de adflatu

(45) eius acceperat sed post amiserat per delictum.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에게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의 '모양'이 된다. 이 형상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안에) 실제이며, '모양'은 (실제로)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나, 후에 죄를 통하여 잃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레니우 Irenaeus(115-202 A.D.)는 imago를 인간의 천부적인 재질이라고 이해하고 similitudo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으나 예수를 통해 인간에게 회복된, '신의 특별한 선물'donum superadditum이라고 주장하였다. 클레멘트Clement(160-215 A.D.)와 오리겐(Origen 185-251 A.D.)도 이레니우스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오리겐은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지은 후의 인간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모양'은 마지막 종말에 도달하는 완전 후에 인간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형상'을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모양'은 인간이 완전한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레니우스와 오리겐은 신약성서 『요한1서』 3:2에서 언급되는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인간들이 참 모습으로 변화하다는 구절을 기초로 ‘형상’과 ‘모양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형상’을 인간의 원래 상태, ‘모양’을 영광스러운 인간의 마지막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플라톤 철학에서 언급되는 인간의 목적은 ‘호모오시스 세오이’ 즉 ‘신과의 합일’이라는 주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⁹⁾ 교부들의 인간 구원의 단계로 ‘신격화’deification라는¹⁰⁾ 개념과 유사하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타나시우스Athanasius(300-373 A.D.)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Cyril of Alexandria (375-444 A.D.)은 ‘형상’과 ‘모양’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니싸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331-395 A.D.)는 ‘형상’을 정적인 것으로, ‘모양’을 동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초대교부 대부분은 ‘형상’은 인간의 ‘육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이성(logos)와 동일시하였다. 이들 중 몇몇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형상’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어거스틴Augustine(354-430 A.D.)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영이 인간의 정신에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이전의 해석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기억, 이해, 그리고 의지(memoria, intelligentia, voluntas)라는 구조를 가진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형상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9) Plato, 『Theaet. 176B』, ed. L. Campbell (Oxford : The Clarendon press, 1883).

10) ‘신격화’deification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신이 된다’는 과정이다. 『베드로후서』 1,4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를 근거로,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인간 삶을 공유한 것처럼, 인간들도 신적인 삶을 통하여 하느님처럼 된다고 주장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개념을 플라톤의 ‘신과 합일’에 적용하였다.

11) Augustine, 『Trinity』 14. ed. S. McKenna (Washington, D.C.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c1963).

IV. 히브리 원문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

성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초대 교부들의 신학적 논쟁들과 이를 기초로 한 서구 신학 전통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서에 나타난 개념을 성서 안에서 더 나아가 성서가 형성된 고대 근동 안에서 봄으로써 성서 기자들의 의도한 신앙고백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추려낼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으로 P기자라고 알려진 성서기자의 기록에서만 언급된다. 『창세기』에서 P기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실제 모습과 동일하게 창조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긴밀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인간의 타락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예수와 동일시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의 히브리 원문을 먼저 살펴보자.

וַאֲסַר אֱלֹ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IV.1. 왜 '우리'인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므로 '우리'가 아니라 '나'로 대치하여야 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전통적인 교부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는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이 이미 태초에 창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존경의 복수'라 하여 수사법의 일종으로 단수 대신 복수를 사용하는 용법으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 특히 메소포타미아, 우가리트, 페니키아, 구약

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들의 모임’에 관한 내용이다. 구약성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편』 82:1; 『이사야』 14:13; 『욥기』 15:8에서 ‘신들의 모임’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가 ‘신들의 모임’의 ‘하나님의 아들들’(『시편』 29:1; 89:7; 『신명기』 32:8)을 이르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로 이해하면 되겠다.¹²⁾

IV.2. ‘-을 따라서’와 ‘-대로’: ‘베이트 에센치에이’beit essentiae와 ‘카프 베리타티스’kap veritas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따라서’와 ‘-대로’로 번역한 히브리어 전치사 ‘베이트(ב)와 ‘카프(כ)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다. 먼저 ‘-따라서’라고 번역한 성서 히브리어 전치사 ‘베이트’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에서’라는 의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전치사의 또 다른 의미는 ‘-로 나타나는; -로 드러내는; -로서’라의 의미가 있다.

이 용법을 학자들은 ‘베이트 에센치에이’(beit essentiae)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 ‘베이트’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와 서술적인 동격 관계를 형성한다. 『출애굽기』 18:4에서 다음과 같은 히브리어 문장이 있다:

『출애굽기』 18:4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בצור)

위 문장에서 ‘나의 도움’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과 서술적인 동격 관계이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 전치사 ‘베이트’가 사용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의 형상’앞에 붙은 전치사를 ‘베이트 에센치에이’용법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한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בצלמנו)”

12) 배철현,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회의에 속한 신적인 존재들,” 『기독교 사상』 2002년 5월, 207-217쪽.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 그 자체’로 만드셨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히브리 전치사 ‘베이트’를 이용하여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로’로 번역한 성서 히브리어 전치사 ‘카프’(כ)의 의미를 추적해 보자. ‘카프’는 두개의 비교되는 명사가 ‘완전한 등가’ 혹은 ‘불완전한 유사함’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완전히 똑같이’ 혹은 ‘유사하게’라고 번역된다. ‘완전한 등가’의 의미는 「느헤미야」 7:2에서 찾을 수 있다:

「느헤미야」 7:2
 왜냐하면 그는 진실로 진실된 사람이다.(הוא כאיש אמת)

이 용법을 학자들은 ‘카프 베리타티스’(kap vertatis)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에 ‘카프’전치사 전후에 나오는 명사들의 관계는 ‘완전한 등가’를 나타낸다. 이 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과 완전히 똑같이 (כמותנו)”

이 두 전치사의 의미로 「창세기」 1:26 전반 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

IV.3.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이 두 전치사들이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두 단어 ‘형상’이라고 번역한 ‘켈렘’(כֶּלֶם)과 ‘모양’이라고 번역한 ‘더무쓰’(דְמוּת)의 의미 추적해 보자. ‘켈렘’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켈렘’은 「창세기」 1:26이 외에 성서에서 12번 언급된다. 이들 중 10번은 어떤 사물에 대한 겉모습을 이르는 단어로 등장한다(예를 들어 「열왕기 하」 11:18의 바알 신상).

그러나 ‘췘렘’이 두 번은 ‘그림자’(『시편』 39:6)와 ‘꿈에서 본 이미지’(『시편』 73:20)로 언급된다. 이 단어는 성서의 쓰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도 있다. 이 단어가 『다니엘』 2-3장에서는 신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언급된다.

‘췘렘’의 심층적인 의미는 같은 어원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언어인 아카드어 ‘췘무’(šalmu)에서 찾을 수 있다. 분명 아카드어 ‘췘무’가 신상을 의미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있어서 신상은 바로 신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있어서 ‘췘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췘무’에 내재해 있다고 믿었다.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도시에 화가 나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데, 그 신들은 ‘췘무’가 움직일 때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믿었다. 오로지 신화적인 사고 안에서만 신들이 우주와 자연에 내재하고 실제로는 신상과 동일시되었다.

대부분의 ‘췘무’는 귀한 나무로 만들어 졌고 대부분 금으로 입혔다. 그들은 보석으로 새겨진 사물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신에 걸맞은 의상과 황소 뿔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췘무’는 항상 인간 모양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물형태를 취한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췘무’를 신전에 특별히 마련된 목공소에서 만든다. 의례 사제들은 생명이 없는 나무를 신이 머무는 지상의 현현으로 만들기 위해 정교한 의례를 지낸다. 이 의례를 통하여 ‘췘무’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의 ‘눈’과 ‘입’이 열려, ‘췘무’는 비로소 살아 있는 것처럼 보고 먹는다. 신전의 종자자들은 이 ‘췘무’에게 왕에게 시중 드는 것 이상으로 의식주를 완벽히 제공한다. ‘췘무’는 때때로 지상의 왕처럼 성전 뜰이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된다.

기원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신들의 ‘췘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신 바빌로니아 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문장들에서 ‘췘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신 바빌로니아의 주신 마르 독신에 대한 찬양내용이다:

1. abūšu šarri bēliya šalam d.Bēl(EN) šarru bēliya

šalmu dBēl(EN)-ma

왕의 아버지, 나의 주인님은 벨신의 '형상'이다. 임금님, 나의 주인도 벨의 '형상'이다.

2.šarru bēl(EN) mātāti šalam d.Šamaš

임금, 이 나라들의 주인은 샤마쉬(태양신)의 형상이다.

3. šar kibrāti arba d.Marduk atta

당신은 온 세상의 임금이며, 말독신의 형상이다.

그 밖에도 앗시리아의 왕조 돌기등에서 흔히 신들이 상징적인 모형으로도 나타난다. 아수르신(Assur)은 날개달린 원형모습으로 샤마쉬신(Shamash)은 태양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위대한 신들의 형상'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의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신 그 자체'를 의미한다.

'모양'이라고 번역한 '데무쓰'의 의미를 추려내기는 '짤렘'보다 더 어렵다. '데무쓰'는 흔히들 '유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마' 동사의 명사형으로 알려져 왔다. 이 단어는 셈어 전체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아람어와 아랍어에서 차용한 아랍어 *dumyaton* '모양'과 티그리니아어 *dumat* '사물의 윤곽'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 어원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텔 파카리아(Tell Fakhariyah) 에서 발견된 아람어-아카드어 이중 비문(기원전 850년)에서 아람어 단어 *dmwt*가 아카드어 *šalmu*와 등가어로 등장하기는 것으로 미루어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데무쓰'는 『창세기』 1:26에서는 '짤렘'후에 사용되었고, 5:3에서는 '짤렘'전에 사용되었다.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로 쓰인 듯하다. 단지 이 두 명사는 그 전치사만 다르게 사용하였다. 『창세기』 1:26에는 '데무쓰'는 전치사 k-를 '짤렘'은 전치사 b-를 사용하였으나, 5:1,3에서는 '데무쓰'가 전치사 b-를 '짤렘'은 전치사 k-를 사용하였다. P기자는 분명 인간창조기사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수사적 용법을 사용한 것 같다.

'데무쓰'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고 살인에 대해 금지하는 말씀이 담긴 『창세기』 9:6을 읽어보자:

『창세기』 9:6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dām)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dām)도 다른 사람에 의해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adam)을 자기의 형상(dmwt)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동료인간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단어는 '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담'(dm)과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인 '아담'('adam)이 '형상'인 '뿔람'(dmwt)과 대비되고 있는 점이다.

만일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모양'이라고 번역된 '더무쓰'가 '피'를 의미하는 '담'(dām)과 어원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은 있는가? 만일 히브리어 어근이 2개의 자음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 단어를 명사로 만들고자 할 때 '요드'(y)나 '바브'(w)를 세 번째 자음으로 만들어 명사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다. 만일 이 히브리 명사 형태론에 의하면 '데무쓰'(모양)은 '담'(피)에서 유래한 명사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인간창조와 '신의 피'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내용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 창조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신화인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와 『아트라하시스』(Atra Hasis)에서 그 예들을 찾아보자.

V. 고대근동문헌에서 '인간창조'

V.1. 『에누마 엘리쉬』의 인간창조

『에누마 엘리쉬』는 일곱개의 토판문서로 이루어진 총 1100행의 이루어진 시이다.¹³⁾ 기원전 1900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서사시는 기원전 1100년경 문전으로 고정되었다. 바빌론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쉬』에서 마르독신이 티아맛을 죽이고 나서 최고신으로 등극한다.

13)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독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49-105쪽.

마르독신이 신들에게 요구한 것은 영구적인 왕의 행정 중심지이자 그들이 '신들의 모임'을 위해 모였을 때 머물 장소 역할을 하는 도시인 '비빌론'과 신전 '에상길라'를 지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르독 왕권에 대한 영구함의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름은 바빌론이 될 것이다. 신들은 마르독의 요구를 듣고 그가 원하는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신전을 누가 지을 것인가? 신전을 짓는 일은 너무 힘들어 신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르독은 첫째 고안품인 우주를 창조한 후, 둘째 고안품을 생각해낸다. 신들의 일을 덜어 주기 위해, 마르독은 인간을 창조하기로 했다:

「에누마 엘리쉬」 제6토판

- (1) 마르독신이 신들의 말을 들었을 때,
- (2) 그는 마술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3) 그가 에아신(Ea)에게 말했다.
- (4) 그는 그가 생각하는 계획은 에아에게 말했다:
- (5) 피물(da:mu) 연결하고 뼈를 만들어
- (6) 태초의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 (7) 내가 태초의 인간을 만들 것이다.
- (8) 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에게 부과해 신들이 쉬 것입니다.
- (9) 내가 신들의 신수를 기적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마르독신은 자기 아버지인 에아신의 충고대로 '신들의 모임'을 소집하고 거기서 혼돈의 여신 티아맛의 장군인 킹구신(Kingu)을 지목한다. 킹구는 티아맛을 선동시켜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끈 장군이므로 킹구를 에아신 앞으로 데려와 살해하려 한다:

「에누나 엘리쉬」 제6토판

- (23) 전쟁을 시작했고
- (24) 티아맛신을 충동하여 군대를 모은 자가 누구이나?
- (25) 전쟁을 시작한 자를 내게 인도하고
- (26) 그가 그의 죄과를 저서 당신들이 평화롭게 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27) 위대한 신들인 이기기신들(Igigi)이
- (28) 신들의 고문인 루갈-딤메르-안키아(LUGAL-DIMMER-ANKIA)에게 말했다:
- (29) 킹구가 티아맛을 충동질하여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 (30) 그들은 킹구를 결박하여 에아신 앞으로 데리고 왔다.

- (31) 예아는 킹구에게 죄과를 묻고 그의 동맥을 절단하였다.
 (32) 그는 그의 피로(dam) 인간을(awilam) 만들었다.
 (33) 그래서 신들의 노역은 인간에게 지우고 신들은 노역에서 해방되었다.
 (34) 지혜로운 예아가 신들의 인간을 창조하고
 (35) 신들의 노역을 인간에게 지웠을 때
 (36) 그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37) 누딤무드(에아)와 마르둑은 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에누마 엘리쉬』에 의하면 인간은 신들의 일을 대신 지는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한 종으로 만들었다. 성서의 인간창조와는 사뭇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는 인간 존엄사상에 들어있는 반면, 『에누마 엘리쉬』에서는 인간을 신을 위한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에누마 엘리쉬』의 인간 창조이야기가 인간을 킹구의 피로 만들어, 『창세기』 1:26의 ‘모양’이라고 번역되는 ‘데무쓰’를 ‘피’로 번역해도 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바빌로니아의 홍수이야기인 『아트라 하시스』에서 살펴보자.

V.2. 『아트라 하시스』의 인간창조

‘아트라 하시스’는 ‘매우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이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우트-나피쉬팀Ut-napishtim으로 알려져 있다. 아트라 하시스는 방주를 만들어 인류 멸종을 막은 고대 오리엔트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대 바빌로니아어Old Babylonian로 쓰여진 『아트라 하시스』는 후에 신-앗시리아 시대의 왕 아수르바니팔Ashurbanipal(기원전 668-627년)의 니느웨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¹⁴⁾ 이 신화를 새긴 서기관은 바빌론의 왕 암미-짜두카Ammi-šaduqa (기원전 1646-1626년)의 관리였던 누르-아야Nur-Aya이다. 그 내용은 크게 인간창조와 홍수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아트라하시스』의 도입부이다:

14) W. G. Lambert and A. R. Millard, *Atra-Hasis: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0).

『아트라 하시스』 제1토판

- (1) 신들이 인간들과 같이
- (2) 일을 하고 노역을 할 때,
- (3) 신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 (4) 그들의 노역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

신들이 노역이 힘들어지자 『에누마 엘리쉬』와 마찬가지로 신들은 에아신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아트라 하시스』 대영 박물관 78257, 제 2 행간

- (1) 에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였다.
- (2) 그들의 동료인 신들에게 말했다:
- (3) 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합니까?
- (4) 그들의 일은 힘들도, 그들의 어려움도 크다.
- (5) 매일 땅이 울린다.
- (6) 그들의 울부짖음이 크고 우리는 그 소음을 계속 듣습니다.
- (7) 여기에
- (8) 출산의 여신 벨레트-일리(Belet-ili)가 여기 있습니다.
- (9) 그녀로 하여금 물투-인간을 만들도록 합시다.(libni-ma lullu awilam)
- (10) 그래서 그가 (신들의) 노역을 지도하도록 합시다.
- (11) 그래서 그가 (신들의) 노역, (엔릴신의 일)을 지도하도록 합시다.
- (12)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도하도록 합시다.

출신의 여신인 벨레트-일리가 인간을 만들 준비를 한다. 벨레트-일리여신은 지혜의 신 엔키의 도움과, 또 다른 출신의 여신 마미(Mami), 제사 여신인 닌투(Nintu)와 함께 인간을 만들 준비를 한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들의 모임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진흙과 한 살해된 신의 피를 섞어야 한다:

『아트라 하시스』 K 6634(V) 토판문사 뒷면

- (189) 벨레트-일리 여신이 출두했다.
- (190) 출산 여신이 인간을 만들도록 하여라.
- (191) 그래서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도하도록 하여라.
- (192) 신들은 그 여신을 불러 부탁하였다.
- (193) 신들의 산파인, 지혜로운 마미를 불렀다:

- (194) 오, 인간을 만드는 출산의 여신,
 (195)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룰루(Lulu)를 만들어라!
 (196) 엔릴신이 부과한 일을 지도록 하여라.
 (197) 신들의 노역을 지도록 하여라.
 (198) 닌투여신(Nintu)이 입을 열어
 (1'99) 위대한 신들에게 말했다:
 (200) '내가 어떤것을 만들어 내는 일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 기술은 엔키(Enki)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 그는 모든것을 정화하기 때문에
 (203) 그가 내게 진흙을 주면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4) 엔키가 입을 열어
 (205) 위대한 신들에게 말했다:
 (206) '첫번째, 일곱번째, 열다섯번째날에
 (207) 나는 정화 목욕을 할 것이다.
 (208) 한 신이 살해되어
 (209) 모든 신들은 그 신의 피에 담가 정화하여야 한다.
 (210) 그의 살과 피로,
 (211) 닌투가 진흙을 섞을 것이다.
 (212) 그래서 신과 인간이
 (213) 완전히 진흙에 하나가 되게 하라.
 (214) 우리가 소음을 일생동안 듣게 하라.
 (215) 신의 몸으로부터 혼이 나올 것이다.
 (216) 그것을 생명이라 부르자.
 (217) 그래서 그 안에 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218) 신들의 모임에서
 (219)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아누나키들이 '그렇시다'라고 대답하였다.
 (220) 「.....」
 (221) 첫번째, 일곱번째, 열다섯번째날에
 (222) 그는(에아) 정화 목욕을 했다.
 (223) 지각이 있는 웨-일라여신,
 (224) 신들은 그를 신들의 모임에서 죽였다.
 (225) 닌투가 진흙을 섞었다.

 (231) 그녀가 그 진흙을 섞은 후에
 (232) 그녀는 위대한 신들인 아누나키(Anunnaki)를 불렀다.
 (233) 위대한 신들인 이기기(Igigi)가
 (234) 진흙에 침을 뱉었다.

- (235) 마미신이 입을 열어
- (236) 위대한 신들에게 말했다:
- (237) 당신들은 나에게 일을 맡겼고 내가 마쳤습니다.
- (238) 「.....」
- (239) 당신들은 지각이 있는 신을 죽였고
- (240) 나는 당신들의 힘든 일을 제거했습니다.
- (241) 나는 당신들의 노역을 사람에게 지웠습니다.

여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신들의 노역을 덜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트라 하시스』는 『에누마 엘리쉬』와는 달리 인간을 정화된 진흙과 지각이 있는 신이며, 신들의 일원이었던 웨-일라 신의 피와 섞어 인간을 만든다. 『창세기』 1:26에 언급되는 ‘모양’은 메소포타미아의 인간 창조 때 ‘피’와 심층적으로는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VI. 나가는 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유대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다양한 해석은 성서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인간창조기사가 쓰인 고전 히브리어의 고전 문헌학적인 해석과, 그 배경이 되는 고대근동의 인간창조신화들,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쉬』와 『아트라 하시스』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창세기』 1:26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단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다.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인간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살인과 저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9:6과 『야고보서』 3:9-10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에게 그가 죄를 지었음지라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창세기』 9:6과 『야고보서』 3:9-10은 살인하고 저주를 일삼는 인간에게

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있다고 전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니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들이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기초이다. 성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인간들을 하나님처럼 사랑라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6을 번역은 다음과 같다.

ואמר אל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자”

메소포타미아 신화들과 비교해 본다면, 유대-그리스도교의 신은 모든 인간을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현현, 혹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 ‘하나님’이라는 인간 존엄성의 선포이다.

이러한 개념을 「시편」 8:5-7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5 인간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이토록 기억해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이토록 돌보아주시니까?

6 하나님보다¹⁵⁾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15) 히브리 원문에서는 מַלְאָכִים로 ‘하나님 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구절을 그리스로 번역한 기원전 2세기 문헌 「칠십인역」에서는 παρ’ ἀγγέλλου, 즉 ‘천사보다’라고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후대 라틴어 번역인 *ab angelis* ‘천사보다’ 등 후대의 성서번역을 주도하였다.

7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나이다.

『창세기』 1:26에 나오는 imago Dei의 의미는 인간을 신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창조한 것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창조했다는 인간존엄사상의 표현이다. 초대 교부들의 이 문장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로 그리스교 신학 안에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만하는 죄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리고 예수를 그 중간자, 화해자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P기자가 고백한 『창세기』 1:26의 인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문:

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1984).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1993),

『The New Oxford Annotated Bible with Apocrypha: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Augustine, 『Trinity』, ed. S. McKenna (Washington, D.C.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3).

Plato, 『Theaet』, ed. L. Campbell (Oxford : The Clarendon press, 1883).

L. Cohn and P. Wendland, eds. *Philonis Alexandrini Opera quae suoersunt*, vol.1 (Berlin: Reiter, 1896),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독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49-105쪽.

배철현, 타르쿰 옹켈로스 창세기 (가톨릭 출판사, 2001).

배철현,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회의에 속한 신적인 존재들,” 『기독교 사상』 2002년 5월, 207-217쪽.

D. Cairns, *The Image of God in Man* (London: SCM Press, 1953).

T. Camelot, OP, "La Theologie de l'image de Dieu," *RSPT* 40 (1956): 443-71.

H. Crouzel, *Théologie de l'Image de Dieu chez Saint Grégoire de Nysse* (Museum Lessiarum, section théologique, 49: 1951).

G. A. Jonsson, *The Image of God: Genesis 1:26-28 in A Century of Old Testament Research* (Coniectanea Biblica, Old Testament Series, 26: Stockholm, 1988).

A. Mayer, *Das Gottesbild im Meschen nach Clemens von Alexandrien* (Rome: Pontificium Institutum S. Anselmi, 1942).

- J. T. Muckle, "The Doctrine of St. Gregory of Nyssa on Man as the Image of God," *Mediaeval Studies* 7 (1945): 55-84.
- W. Seibel in *Mysterium Salutis*, ed. K. Feiner and M. Löhrer, 2 (Einsiedeln 「1967」): 804-43.
- J. E. Sullivan, *The Image of God: The Doctrine of St. Augustine and its Influence* (Dubuque, Ia., 1963).
- A. Struiker, *Die Gottenbildlichkeit des Menschen der christlichen Literatur der ersten zwei Jahrhunderte* (Münster: Aschendorff, 1913).

<Abstract>

Imago Dei?

Bae, Chul-Hyun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original meaning of *imago dei* in 「Genesis」 1:26, which describe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A key expression is that God made the human in God's own image and likeness. The writer, after surveying early Judeo-Christian scholarship on the concept of *imago dei*, tries to formulate a definition of humanity on the basis of classical Hebrew philology. Mesopotamian anthropogonic accounts in 「Enuma Elish」 and 「Atra Hasis」 provides concrete meanings about 'image' and 'likeness' in broad Near Eastern context. 'Imago Dei' in Genesis 1:26 is a bold statement that human-being is a God on the earth, bearing *imago dei*.